사설



문 영 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무더위와 가을장마 속에서 농업인들 은 생산된 농산물이 모두 팔리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생산량이 넘치 지 말아야 되는데 올해도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월동 무를 줄여야 한다고 만 하면서 대체작물을 제시 할 수도 없고, 지역 내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 간 경쟁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채소류 재배와 관련해 서 매월 발표하는 농업관측정보는 주 요 작물을 대상으로 파종 전 재배계 획 면적과 시기 별 생육 상태, 그리고 지역별 출하동향까지 각종매체를 통

월동채소 휴경보상제 도입할 때가 됐다

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면적을 조정해 주면 고마운 일이나 기대와 다르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다.

농정당국에서는 매년 월동채소 재 배 전 면적을 줄여 심어줄 것을 홍보 하고 있지만 수확시기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작물이 생겨 '팔아주기 운 동'과 신문·방송을 통해 농산물이 원 활한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 나 성과는 크지 않다. 월동채소류의 생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 업인들이 공통적인 문제이다. 재배면 적이 전년보다 증가되는 작물을 줄여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 해서 가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현재로선 과잉 생산된 농산물 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산지폐기' 제도 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산지폐기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일정량 의 농산물을 수확하지 않고 밭에서 폐기하고 영농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를 중앙정부 30%와 지방정부 30% 지역농협 20% 자부담 20%의 비율로 보상해 농가의 피해를 줄여주는 제도 로서 날이 갈수록 많은 작물이 산지 폐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산지폐기 하기 전에 재배면적을 줄 이기 위해서 '휴경보상제'를 도입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휴경보상제 란 지난 2019년 제주에는 장마에 더 해 3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자연재해 로 월동채소 농사를 그르치게 됐다. 이때 농업인들이 재난지역선포를 중 앙정부에 요청했으나 농작물피해금액 은 재난지역선포 조건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해, 양배추 등 14개 작물의 피 해면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농사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준적이

있는데 이것이 '휴경보상제'로서 이 미 경험했다. 벼농사에서는 2019년부 터 '쌀 생산 조정제'가 휴경보상방식 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논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휴경 280만원, 콩류재배 325만원, 풋거름재배 340만원, 가축사 료재배 430만원/ha 순으로 휴경보상 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은 벼농사 직불금을 받을 수 없고, 영농 경력에도 포함되지 않는 반면 쌀값은 안정적이라 정부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월동 채소류의 생산량을 알 맞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줄여도 소득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하는데 사후 산지폐기보다는 사 전에 채소를 재배하지 않을 밭에 대 한 '휴경보상제'를 도입해 농가소득 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때가 된 것 같다.



편집국 25시

이 상 민 정치부 기자 hasm@ihalla.com

"공직시스템은 도지사가 누구든 잘 굴 러갈 수준이다." 도지사 공백 우려가 제 기될 때마다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이 반복됐다. 걱정을 덜어줄 요량으로 한 말일 테지만, 정말 도지사가 없어도 잘 돌아갈 세상이라면 우린 도지사를 뽑을 필요가 없다. 돌이켜보니 초점을 '지사 가 없어도 도정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까'에만 맞추다보니 뻔한 대답이 반복 된 것 같다. 나는 선출 권력 부재의 의 미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원희룡 전 지사 사퇴로 도정은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권한대행은 공무 원 인사에 더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쥔 도정 최고책임자가 됐다. 이미 권한대행 은 새 정무부지사를 지명하며 첫번째 인사 권한을 행사했다. 이유 불문하고 도정에 새로운 통치권력이 탄생했다.

선출 권력의 부재

그러나 우리는 권한대행에게 통치권 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도민들은 선 거로써 원 전 지사가 도백을 맡는 것 에 승복했을 뿐, 갑자기 그가 아닌 새 로운 통치 권력이 탄생하는 걸 동의하 지 않았다. 우리가 준 권력을 우리 의 사와 상관없이 다른 이에게 넘겨준 사 람은 원 전 지사다. 따라서 선출 권력 의 중도 사퇴는 또다른 의미에선 참정 권 훼손이다. 한 표의 무게를, 민주주 의 사회에서 참정권이 어떤 가치를 지 니는지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 하고 또 고뇌했을까. 난 알지 못한다.

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아꼈지만 침해된 참정권 을 회복할 기회는 사라졌다.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선관위 결정엔 명 과 암이 있다.

소용돌이 치는 제주의 현실을 아는 지 모르는지, 하루가 멀다하고 그의 소식이 들려온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앞에서 무릎 꿇은 사진이 눈에 들어 온다. 마음이 번거롭다. 가장 먼저 무 릎 꿇을 곳은 그곳이 아니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표를 구하는 일보다, 한 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길 정치인 은 영영 없을 것만 같아서다.

뉴스-in

조계사 큰스님들 찾아간 기독교 신자

원희룡 대선후보 지지 호소

○…기독교 신자인 국민의힘 대 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3 일 서울 조계사를 방문해 합장을 하고 큰스님들에게 지지를 당부.

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 스북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만큼 획기 적인 바람을 기대한다"며 격려를 해 주었고 총무원 기획실장인 삼혜 스님은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크 다. 서로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말 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글과 합장한 자신의 사진을 게시.

원 전 지사는 "큰 스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깊고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첨언. 고대로기자

예산낭비 사례 부지기수

○…25일 제주시 주간 간부회의에 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사전 사 업계획 수립 시 일단 예산 반영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이후에 낭비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대두. 안동우 시장은 "내년도 예산 편

성 시기와 관련 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결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규모 사업예산 수립 시 적정한 공법선정 등 비용 절감 방향으로 편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

이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설계·공법변경이 있어선 안 된다"며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 이윤형기자

코로나 극복 예산 편성 주문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25일 영상으로 개최한 시정정책회의에 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 화와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2022년 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

또한 노지감귤 가격을 결정짓 는 극조생 감귤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기출하 등 유통지도에 철저 를 기해줄 것을 당부.

아울러 김 시장은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모두에게 어려운 명절 이 될 것 같다"며 복지시설과 어 려운 이웃에 대해 전 공직자가 관 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백금탁기자

오염하수 방류 연안생태계 파괴 우려된다

제주도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 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보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수처 리 용량이 이미 과부하에 걸리면 서 오염된 하수가 시도 때도 없이 바다로 방류된 것이다. 제주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하수처리장 에서 배출되는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가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큰일이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이 2017~ 2019년 해양생태환경 실태조사 결 과 서귀포시 보목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해역의 수질평가지수는 5 등급(아주나쁨)으로 나왔다. 특히 보목하수처리장의 오염된 방류수가 조류 영향으로 먼바다로 빠져나가 지 못하고 다시 연안으로 유입되고 있어 문제다. 보목하수처리장 앞바 다가 만(灣) 형태로 이뤄진 탓이다.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제주하 수처리장도 마찬가지다. 제주하수 처리장 앞바다 역시 만 형태로 돼 있다. 때문에 집중호우 때 기준치

를 초과한 하수가 바다로 방류되 고 있지만 자연적인 정화가 안된 다. 이곳의 수질평가지수는 4등급 (나쁨)이다.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에서 납·아연 등 중 금속이 초과 검출돼 어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래도 보목하수처리장은 지난 해 7월 하수처리 시설이 증설됐다. 문제는 제주하수처리장이다. 처리 용량을 넘어선지 오래됐지만 올해 초에야 증설사업이 발주됐다. 완공 시점도 2025년 말이어서 그때까지 는 오염된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의 지적처럼 방류수가 외해로 빠져 나 가지 못하고 연안으로 재유입된다 면 수중생태계의 파괴는 불가피하 다. 실제 하수처리장 방류관 주변 반경 200m 이내에는 유용해조류가 서식하기 힘들 정도로 수중생태계 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하수처리장 방류 수를 제대로 정화하고 어업피해 예 방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수산직불금, 누군 받고 못받는 불합리 안돼

수산직불금이 어민 누군 받고 못받 는 현실로 인해 소득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크게 잃고 있다. 수산 직불제 대상이 농어촌지역이나 도 시지역 어디에 거주하는지 여부로 갈리면서 어업 종사자간에 형평성 을 잃고 있어서다. 정부와 제주도 가 법 규정을 이유로 해법을 못찾 지만 한 동네나 다름없는 이웃주민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현실엔 반 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달초 해양수산부를 방 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적 용대상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내 어민중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아닌 동지 역. 즉 제주시내 9개동과 서귀포 시 1개동에 사는 경우 지원대상 서 배제된 현실 탓이다. 도가 도 서(섬지역)거주 주민도 대상인 점을 들어 제주를 섬지역으로 확 대 해석, 전 어민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건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제주 본섬을 섬으로 인 정않는 '섬발전 촉진법'을 근거

로 수용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주 본섬 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이 아 닌 도시지역 10개 동 거주 어민 들은 수산직불금을 못받는 역차 별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제주시 용담1동(도시지역) 어민 은 못받고, 용담2동(농어촌지역) 어민은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이 사실상 한 동네면서 이웃주민 간에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와 도가 문제해결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수산직불금 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어민들 소 득을 보전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사실상 한 동네 살면서 누 군 받고 못받는 불합리성도 방치 해선 안될 사안이다. 또 도내 농 어촌지역 지정도 지난 2007년 이 래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해야 한다. 당국은 "모든 법과 규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 민이 법과 규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卫

김창용(씨제이그린유통(주) 대표) 어머니 광산김씨 신생(향년 91세)께서 서기 2021년 8월 24일 20시 0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8월 26일(목요일) ▶ 발인일시: 2021년 8월 27일(금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양지공원

남 편김영보

아들김창용 며느리 강 문 순

성필 김혜숙 딸 김미자 사위성충훈

> 미경 김영대

※ 연락처 : 김창용 010-3693-9818 김미경 010-7711-7535 김영대 010-4699-721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성택(향년 7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8월 26일

부 인 **고춘향** 김봉균 며느리 김영숙 창균

김봉효 사 위 오현교 김라웅 이정윤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흥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윌한 선택! 확실한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7 756-2833